

베드로전서 강해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 (벧전5:1~7)

반태호 목사

우리는 지난 달 「생명의 삶」 본문이었던 느헤미야서를 통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50년동안 성문이 없고 성벽이 없었지만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던 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52일 만에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

지도자의 중요성은 위기의 때에 더욱 잘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가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 역사를 바꿉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들이 말하는 장로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에는 직분이 장로와 집사, 둘 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는 요즘의 목사와 같습니다. 그 당시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로’, ‘목사’, ‘감독’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다만 목양을 강조할 때는 ‘목사’, 리더십과 치리를 강조할 때는 ‘감독’.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른으로서 지도력을 말할 때는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봐도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은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시고, 목회자들은 예배와 말씀을 담당합니다.

위기의 때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춥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한 장로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는 강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코 어리석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기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목양입니다. 행정이나 건축이나 구제하는 일보다 큰 것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목자의 제일

된 본분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자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지도자를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원한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자가 되라’라는 말은 곧 ‘지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셨다면 제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자양육의 마지막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는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양육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양을 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주님이 양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입니다. 순원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양육자가 있는 모두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으면 자원하는 마음은 자칫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 주장이 되거나 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원해 놓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면 차라리 자원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중의 두 번째는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으로 평가받기 원하고 돈을 바라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샅꾼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도, 저녁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 우리의 관심은 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동역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상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적 지도력의 최대의 시험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성김에서 나옵니다. 영적지도자는 카우보이가 아닙니다. 영적지도자는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순복하는 지도자

이제 베드로는 미래의 지도자들인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장로들은 섬기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은 그 성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참 함부로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보면 겸손하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기꺼이 섬길 때, 겸손하고 순복하십시오. 젊은이들도 곧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고 순복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중에 겸손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신 것도 겸손과 순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겸손과 순복을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겸손과 순복이 없었을 때 그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겸손하고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채 스스로 나서면 반드시 먼저 나선 것 때문에, 훈련과 연단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복의 대가가 있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성김의 길을 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겸손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